

“유교와 인격교육”에 대한 논평

이 문 원
(중앙대학교)

유교는 과학 기술문명이 첨단으로 발전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 속에 깊이 들어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선조들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종교로 취급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간의 소외현상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의 사상적 바탕을 유교에서 찾아야 한다. 이같은 취지에서 앞으로 ‘유교에서의 교육’이라는 주제는 과거를 회고하는 방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교의 기초적인 내용을 재정리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발표자는 이같은 생각을 갖고 쓰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결론에서 제시한 유교의 현대화 작업에 관하여 깊은 공감을 갖고 있다. 현대 사회는 편의성, 합리성, 과학성, 실증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무너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대응만 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현상, 탈 윤리적 현상을 극복하려는 반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할 때 유교가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유교에는 원래 교육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儒’는 사람에게 필수적인 道理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같은 사람을 우리는 學者라고 한다. 학자는 자신만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教化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儒者 柔也和也 言能安人 能服人也: 禮記 儒行 釋文).

동양사회에서의 教育의 의미는 上所施下所效也(敎) 養子使作善也(育)였다. 즉 聖

人, 君子들이 유교 원리에 따라 실천하고 이를 하나의 同一視 대상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 행동하므로서 善한 방향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유교의 교육은 인간자체가 가지고 있는 本性으로 돌아가서 完人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完人이 되기 위해서는 소학을 배운 후에 대학의 本旨인 三綱領 八條目을 익혀야 한다. 이는 明明德, 親民, 止於至善과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이다. 이와 같이 유교는 개인의 인격완성에서 출발하여 사회적인 도덕질서를 실현하는 데로 나아가는 방법적 단계를 순차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교 정신으로 무장되면 개인적으로는 도덕적 인간으로 완성되고, 王道를 지켜나갈 수 있으며, 아울러 넓은 교양과 깊은 학문으로 他人들이 넘겨볼 수 없는 확고한 신념의 경지에 까지 이르게 된다(博而約之 不可奪志). 이같은 유교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현대사회의 탈윤리적이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儒教는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적 성격을 표현한 것이고, 儒學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학문적 성격을 표현한 말이며, 儒道라는 말은 실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천적 입장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였다.

토론자가 이해하기로는 儒道는 儒教와 儒學, 그리고 儒術을 함께 묶는 개념이다. 儒教는 교훈의 의미, 종교의 의미, 修道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으며 大學의 三綱領 八條目 중에서 誠意, 正心, 修身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道의 교화 즉 개인의 도덕적 수양인 修己를 의미한다. 儒學은 大學의 格物과 致知에 해당되며 과학과 철학을 포함해서 지식획득을 목표로 하는 학문적 경향을 말한다. 儒術은 道의 실현 즉, 정치참여를 말하고, 大學의 齊家, 治國, 平天下를 포함한다. 이는 修己 이후에 治人을 말한다. 이렇듯 유교는 광의로 설명된다. 儒道는 위의 세가지를 달성한 후에 止善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 仁에 도달한 후에 人道를 실현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儒教라고 말하고 있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분류방식과 차이점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발표자가 표현한 유학에서의 '배우는 사람'의 개념이 보다 정확히 정의되었으면 한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의미에서의 배우는 사람의 의미는 아닌 것 같다. 자신의 학문을 연마한다는 자기 학습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가 어떤 의미

의 '배우는 사람'을 사용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유교의 실천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 발표자는 유교교육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학과 대학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학과 소학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으면 한다.

셋째, 발표자는 知의 문화가 생물학적 삶이고 이것이 荀子の 性惡說로 대변되며, 이를 고치기 위하여 形而下學的인 小學을 공부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知란 인간의 인식작용, 인식 과정 및 그것에 의해 획득되어진 인식의 내용, 인식의 결과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인식, 지각, 지식, 지성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다. 특히 儒家에서는 知를 仁, 義, 禮와 함께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고유한 네가지 德性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욕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것이 성악설과 관련되고 따라서 형이하학적인 윤리교육이 필요했다는 논리는 비약인 것 같다. 유교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규명하고 논의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발표자는 소학은 形而下學으로서 衣食住를 포함하는 생리적 욕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설명 또한 형이하학적 차원인지에 관하여 보완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